

미덕의 담지자로서 디자이너의 역할에 관한 연구 124) - 조나단 에드워즈의 미덕의 개념에 근거한 -

나동훈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공예학과 박사) 125)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디자이너의 사회적 책임윤리에 필요한 이타주의를 찾고 그 이타주의를 통해 디자인의 올바른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다. 나아가서 디자이너의 창조행위란 타자와 공동체를 위한 도덕적 창의성을 발산하는 것이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임을 밝히는 것에 있다.

오늘날의 윤리적 상대주의 시대에 디자인학문에 ‘덕(virtue)’과 ‘선(good)’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윤리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으로 인해 용의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자의 가장 큰 관심은 이러한 윤리적 회의(懷疑)시대에 디자이너의 삶의 원동력이 사회에 대한 사랑과 ‘덕’에서 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다.

연구자는 질문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설교자가 아닌 학자로서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를 만나게 되었다. 에드워즈는 18세기에 만연한 이신론적이며 합리주의적인 도덕철학자들의 사상을 반박한 학자로서 그의 저서들은 디자인학문에 타자를 수용하는 이타주의를 확립하기에 탁월한 논리를 제공한다.

연구자는 특별히 그의 저서 「참된 미덕의 본질」을 통해서 디자인학문이 자아실현, 혹은 개별집단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그 목적 아래 환원시키는 가치관에서 벗어나며 개별존재간 상호충돌을 피하고 자기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윤리수립의 길을 얻고자 하였다.

에드워즈가 말하는 미덕의 본질에 따르면 보편존재이신 하나님 아래에서 모든 개별존재(디자이너, 소비자, 사회구성원)간에 호의적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인격적 보편질서를 수용하게 되었고, 디자이너는 참된 미덕(true virtue)의 담지자로서 그 미덕을 실천하는 개별존재가 되며 소비자는 소구대상의 한계에서 벗어난다. 익명화된 소비자를 고유한 타자로 수용함으로써 자아중심의 고립된 삶에서 벗어나는 길이 열린다.

그러하기에 이 시대의 디자이너들이 그의 사상과 인간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보편존재이신 하나님 아래에서 보편질서를 실천하는 참된 미덕의 담지자로서의 자기이해의 길이 열릴지 바란다.

주제어: 미덕, 윤리, 디자인, 이타주의, 보편존재

124) 본 연구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공예학과 박사논문(2012년도 12월 31일)중 관련 있는 주제의 일부를 수정하여 요약한 것이다.

125)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공예학과 박사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가 세계를 조망하고 무엇이 실재적이고 중요하든 또는 무엇이 비실재적이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창문이다.¹²⁶⁾ 따라서 이 시대의 디자인의 가치 체계와 디자인의 윤리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세계관과 연결된다.

‘모더니즘 디자인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로피우스와 그 모더니즘을 해체시킨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자 데리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첫째, 그 시대의 시민사회 속에서 지식의 담지자(擔智者)로서의 시대적 소명의식을 삶으로 옮기는 길을 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아나바시스(Anabasis)’를 통해 ‘카타바시스(Katabasis)’를 실현한 사람들이다. 둘째, 그들의 한계와 오류는 그들 역시 그 시대의 세계관 아래에 ‘시대의 아들(A creature of the age)’이라는 것에서 이해된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들의 학문적, 문화적 업적을 통해서도 배우는 바가 있지만 그들이 시대적 진제의 틀(grid)에 저항한 노력에서도 배우는 바가 크다.

즉, 자신들의 시대가 주는 기존의 세계관, 가치관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 근원적 의미와 내포된 의미의 침전물¹²⁷⁾을 발견하려 노력하였으며 그 깨달은 바를 시대의 언어로 등가변형을 하였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지식의 담지자(擔智者)’에서 ‘지식의 전달자(傳達者)’로서 역할을 담당한 소명의식에 놀랄 뿐이다.

이러한 입각점(立脚點)에서 볼 때, 이 시대의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소양은 무엇일까? 과거 어느 시대보다 통전적 사고와 창의성을 요구받는 이 시대에 ‘디자이너’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선제(先在)적 조건은 무엇일까?

본 연구자는 그 가설적 조건을 ‘참된 윤리의 소유’에서 찾고자 한다. 즉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자기 이해에서 찾고자 한다. 따라서 이 점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필연적으로 역사와 철학을 동시에 논해야 한다고 본다. 에드워즈의 혜안(慧眼)을 통해 역사를 반추해볼 때 모더니즘디자인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본질을 분별하게 된다. 개인이 사라진 환원(reduction)적 전체주의 사고에 사로잡히는 소비자를 만드는 모더니즘과 개인의 윤리(ethics)적 상대주의 사고에 따라 서로간 의사소통과 합의의 길을 차단시키는 포스트모더니즘은 그 주장 안에 ‘동굴의 우상’¹²⁸⁾과 같은 편견이 있다.

본 연구자는 특별히 ‘윤리와 가치’가 상대화된 동시대의 해답을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상에 함의된 이타주의에서 찾고자 할 것이다.

즉 에드워즈가 말하는 ‘참된 미덕의 본질’이 디자인의 책임윤리에 수용 가능한 개념인지를 살펴볼 것이며 그가 주장하는 ‘아름다움’의 정의가 디자이너의 인격과 디자인된 창조물에 온전히 투영될 수 있는지를 확인 할 것이다.

126) 낸시 페어시, 「완전한 진리」, 홍병룡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11, p. 24

127) 서성록은 그의 저서 「거룩한 상상력, 램브란트」에서 말하기를 작가의 작품 혹은 사상가들의 글을 접할 때 항상 그 안에 담겨진 사상과 의도를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며 이를 ‘의미의 침전물’이라 한다.(서성록, 「거룩한 상상력, 램브란트」, 서울:예영커뮤니케이션, 1996 참조)

128) 프란시스 베이컨이 플라톤의 《국가론(國家論)》 제 7권 중 소크라테스가 말한 비유(比喻)에서 인용한 ‘동굴의 우상’처럼 그 동굴에 얽매는 인간은 보다 넓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모더니즘이 개인을 ‘소비사회’라는 동굴에 갇히게 하듯, 포스트모더니즘 또한 개인 간 윤리 문제를 따질 수 없게 하는 ‘윤리적 상대주의’라는 동굴에 갇히게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보편존재이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타자(자신과 이웃을 향한)윤리를 '보편적 이타주의'라 명명하며 디자인의 사회적 책임윤리로 제시해 볼 것이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인 사람으로 디자인 윤리를 펼쳐볼 것이다. 이런 책임윤리를 통해 디자이너는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유혹하는 오브제'¹²⁹⁾의 생산자가 아니라 타자(소비자)의 필요와 요청에 반응하는 존재로 인지되길 바랄 것이다.

이는 '문화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다'¹³⁰⁾라는 반 페슨(C. A. van Peursen)의 말대로 '예술과 문화'는 타자(소비자)의 진정한 문화적 요청(needs)을 파악하고 이를 실현시키는 디자인행위(동사)에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본 연구의 결과가 디자이너의 윤리적 소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도입해야 할 근거 중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인격적이고 보편적인 미와 선'의 합의를 이루는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메타담론(metadiscourse)'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해 디자이너는 타자의 욕구(wants)가 아닌 필요(needs)를 파악하고 필요를 넘어 선행(goods)을 만들어주는(create) 가치창조자가 됨으로서 이 시대의 윤리적 소명(calling)의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being)로 자리 잡길 바란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보편적 이타주의를 실천하는 디자인이 디자이너의 본질적 책무임을 규명하려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의 사회적 가치와 윤리적 소명(calling)을 거론할 것이다. 비록 시대성, 지역성의 한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이너의 자발적인 윤리실천이었음을 증명함으로써 동시대 디자인학문에 걸여된 '덕'의 가치를 확인할 것이며 위 필요성의 근거하여 에드워즈의 참된 미덕에 따른 보편적 이타주의를 통해 디자인의 올바른 책임윤리의 모델을 세우려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디자이너가 어떠한 덕을 소유하고 타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자신의 창의성을 통해 무엇을 발휘해야 하는지를 밝혀 볼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미덕의 담지자로서 삶을 실천하는 윤리 창조자(creator)로 인식되기를 바란다. 나아가서 본 연구의 결과가 살아계신 보편존재 이신 '하나님의 통치아래에서 수립되는 이타주의'에 따른 윤리학이 디자이너의 자기이해를 위한 교육과정에 필히 도입해야 할 작은 전거(典據)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II. 동시대 디자인의 책임윤리 상황과 본질적 소명

1. 동시대 디자인의 책임윤리 비판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는데, 이때마다 과학적 지식과 도덕적 고

129) 우나미 아키라(unamiakira)는 그의 저서 「유혹하는 오브제」를 통해 이 시대의 상품이 '유혹의 윤리'를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순혁 역, 「유혹하는 오브제」, (서울: 도서출판국제, 1994)

130) 반 페슨(C. A. Van Peursen)은 문화발전 모형을 신화적 단계, 존재론적 단계, 그리고 기능적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그의 입장에 따르면 문화는 명사(名詞)가 아니라 동사(動詞)이다. 즉, 우리 자신의 학문이고, 우리의 책임이다. (반 페슨, 「급변하는 흐름속의 문화」, 강영안 역, 서광사, 1994, p. 7 참조)

려가 서로 뒤섞여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사람들은 그다지 잘 의식하지 못한다.¹³¹⁾ 즉 자신의 모든 일상 행위에 담겨진 지식과 윤리적 판단이 함께 작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행위자는 그 행위에 담긴 의미를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파괴력은 '디자인은 모든 인간 활동의 기본이 된다. 우리가 욕망하고 예측할 수 있는 목표를 향한 모든 행동계획과 패턴화는 디자인 과정을 의미한다. 디자인을 삶에서 분리해내려는 모든 시도는 디자인 이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사실에 역행하는 일이다'¹³²⁾ 라며 역시 디자인이 삶의 가치와 목적의 식과 결부되어 있음을 밝힌다.

이러한 디자인의 위치는 여타 문화적 활동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윤리적 물음(이것이 과연 선한가?)에 대한 답이며, 디자이너는 자신의 지식을 윤리적으로 해석하여 창의성을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따라서 지식과 윤리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지식이라도 결국 선과 악에 대한 물음에 부딪힌다.'¹³³⁾는 뜻이다.

지식의 내용(무엇)은 윤리적 행위(어떻게)를 통해서 비로소 쫓긴다. '윤리'라는 말은 여기서 넓은 뜻으로서 도덕적 규범이나 도덕이론의 체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한 인격과 사회의 책임적인 존재 전체가 곧 윤리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준다.¹³⁴⁾

2. 동시대 디자인의 상대주의 왜곡과 수용

포스트모더니즘 혹은 상대주의라고 말할 때 그 안에는 모더니즘 혹은 절대주의의 비판이라는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 이는 무엇이 근대성의 시작점인지를 묻게 하며 소위 '근대성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카르트를 통해 시작된 계몽주의를 떠올리게 된다. 상대주의는 바로 계몽주의의 한계에 대한 반발과 자기반성의 결과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포스트모더니즘이 나타나면서 모더니즘이 사라진다고 주장하고 싶어지나 "탈근대성은 근대성과 깔끔하게 분리되지 않는다. 근대성과 탈근대성은 연결되면서 동시에 구별된다. 예를 들어 탈근대성은 자유와 기술사용 같은 주제에서 근대적 입장을 더욱 강화한다."¹³⁵⁾

흔히들 소품중대량생산에서 다품중소량생산으로의 변화, 개인별 스타일에 맞는 디자인의 출시 등으로 포스트모던디자인 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하게 된 이면에는 기술적 진보가 있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던디자인은 근대성의 정신과 일치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따라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할 점은 동시대 디자인이 과거의 획일적 디자인에서 탈피하여 다양성이 실현되었으므로 이것이 곧,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이다. 다양한 소비 형태가 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히 비인격적인 획일성과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소비의 다양성이 개별적인 선택권을 준다는 이유로 인간성 회복에 기여하는 것 또한 결코 아니다. 이는 상대주의 사상들의 주장만 살펴봐도 곧 파악된다.

상대주의의 가치는 이성중시의 합리주의로 인해 인간이 전체주의의 부품으로, 소비구조의 소수대상으로 전락화 되는 '인간의 익명화'에 대한 반발이다. 그러나 디자인 영역에서 상대주의를 두 가지 측면

131) C. A. 반 페슨, 「급변하는 흐름속의 문화」, p. 223

132) 빅터 파파넥, 「인간을 위한 디자인」, 현용순·조재경 역, 미진사, 2009, p. 395

133) C. A. 반 페슨, 「급변하는 흐름속의 문화」, pp. 224-226

134) 위와 같음

135) 제임스 K. A. 스미스, 「누가 포스트모더니즘을 두려워하는가」, 박삼중·배성린 역, 살림, 2009, p. 43

에서 왜곡된 수용이다.

하나는 앞서 지적한 바대로 다양한 디자인을 통해 확보된 선택의 자율성(실상은 그 자율성 또한 조작 가능한 영역임을 배제하더라도)을 인간의 자율성으로 여겨는 왜곡이다. 실상 상대주의의 비판은 '물건의 획일성'보다는 사회구조 안에서의 '획일적인 삶의 양식'에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상대주의의 논리적 모순을 수용하여 디자인의 윤리적 가치를 상대화시킴으로써 디자인의 사회적 책임윤리를 회피하는 왜곡이다.

테리다는 1967년 "텍스트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¹³⁶⁾라고 말하며 객관성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해석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해석이 없는 시대가 없었듯이 결코 해석의 영역을 벗어나는 세계는 없다. 즉, 텍스트를 넘어서거나 텍스트 뒤에 있는 지시대상에 이를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세계는 해석에 종속되기에 그의 논리 따른다면 당연히 "텍스트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게 된다. 테리다의 이러한 분석으로 인해 결국 해석이 있다는 것은 곧 객관적 진리가 없다는 뜻이며 이는 객관성 즉 합리주의 사고가 실상은 '제국주의적, 식민주의적 지칭으로 자주 번역'¹³⁷⁾됨을 간파하게 된다. 주목할 점은 비록 신앙 없는 '테리다'라는 지성인이 주장하는 윤리적 고발이다. 테리다의 분석은 '절대적 가치는 없다'는 식의 윤리적 붕괴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테리다는 자신의 주장이 모든 준거,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를 거부한다.¹³⁸⁾ 도리어 테리다의 주장은 사회를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해석의 필수조건인 올바른 기대핑과 전체가 필요함을 깨닫게 해준다.

테리다의 해체론 덕분에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집단의 해석, 기업 가치의 해석에 의문을 던지게 될 여지가 생긴다. "해체는 주변으로 밀려난 해석에 관심을 가지고 침묵을 강요당한 목소리를 소상시킴을 한다."¹³⁹⁾

디자인은 기업의 디자인 목적에 의미를 되물으며 이익중심의 디자인 결과요구에 비판을 가할 수 있다. 따라서 '해체는 처음부터 윤리적'¹⁴⁰⁾이다.' 상대주의 사상이 테리다의 상대주의는 디자인의 사회적 책임윤리가 보다 능동적이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해준다.

또 다른 상대주의자 푸코에 따르면 지식과 정의는 본질적으로 권력으로 환원된다. '권력은 지식이다.'라는 그의 주장대로 푸코가 볼 때 밖으로 드러난 객관적 진리 너머에는 은밀히 작동하는 권력이 있다. 푸코는 "권력 메커니즘이란 기계를 조율하고 정밀하게 하는 과정이며, 이 기계는 개인을 돌볼 책임이 있다고 스스로 가정하면서 일상 행동, 신원, 활동, 평범함 몸짓까지"¹⁴¹⁾ 감시한다고 파헤친다.

이 권력 메커니즘은 혼욕하는 사회를 형성하게 하는데 여기서의 혼욕은 사회조직 원리를 세우는 건

축으로 비견되며 벤담이 구상한 '파놉티콘'¹⁴²⁾을 이상적인 권력메커니즘의 모형이라 제시한다.

기억할 것은 푸코는 혼욕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텔로스(telos), 즉 목적에 따라 좋은 혼욕과 나쁜 혼욕을 구별할 것을 말한다.

그러나 역사를 볼 때 혼욕 양식은 대체적으로 환원주의적이었다.¹⁴³⁾ 상대주의 사상이 푸코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혼욕메커니즘은 인간을 '소비'와 같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존재로 소비 사회의 한 일원으로 환원시킨다. 동시대는 나쁜 혼욕으로 인간을 소비자라는 존재, 다시 말해서 소유물로 정체성을 결정하는 존재로 만든다. 푸코에 따르면 '마케팅'은 의미와 초월을 갈구하는 인간 욕망의 기본 구조를 자본 삼아, 상품과 서비스가 인간 욕망을 채우는 방법이다.¹⁴⁴⁾

비그리스도인, 푸코의 주장 덕분에 우리는 공리주의로부터 시작된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의 고유한 존재가치를 파괴하는 파놉티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간은 그 감시 하에 소비자로 전락함을 자각하게 된다.

그러나 푸코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동시대 디자인은 책임윤리를 잃어버린 채 혼욕메커니즘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푸코가 지적한 권력 구조의 모델은 '병원'이 아니라 오늘날에 쇼핑몰, 카드결제, 검색엔진을 통해 디자인 상품을 소비하게 하며 인간은 자신의 소비행태, 나아가서 문화행동 전체를 감시받고 조정당하는 '가상의 파놉티콘' 내에 준거하게 된다.

빅데이터를 이루며 벽과 창문, 망루나 감시자가 없이도 '개인들 스스로가 데이터베이스를 채운다. 그들은 정보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정보의 기록자이기도 하다.'¹⁴⁵⁾

테리다, 푸코와 같은 상대주의 사상가들의 통찰은 디자인의 사회적 책무를 더욱 확인시켜준다. 디자인이 결코 가치중립적이지 않음을 주시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대 디자인은 이러한 사상의 순기능을 수용하기보다는 상대주의가 안고 있는 '윤리적 상대주의'의 모순을 근거 삼으려 한다. 그 근거에 따라 디자인업무에 사회적 가치를 투사하는 '윤리실천' 자체를 논의시키고 있다. 이는 상대주의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의 결과이다. 즉, 소비행태의 다양성을 이익실현의 다각화로 여기는 이해와 적용은 상대주의 사상가들의 목적과 관련지어 볼 때 반상대주의 디자인이라 할 수 있겠다.

물론 상대주의 사상의 왜곡, 피상적인 이해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상대주의 사상 자체에서 보여지는 윤리적 모순성이다. 따라서 디자인 학문에서 상대주의를 온전히 이해하여 수용하려면 상대주의 사상에 대한 근본적인 분별이 필요하다.

상대주의의 지적 여로는 흔히 알고 있는 바대로 모더니즘에 대한 엄증과 더불어 과학적 상대주의가 등장하면서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과학적 원리에 근거한 부분적인 '상대화'의 개념을 통해 사회전체에 걸쳐 가치상대화를 주장하는 영역일반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부분적 상대주의는 과학적 상대주의를 거쳐 사회학으로 전이되어 윤리적 상대주의로 옮겨가는 '범주의 오류'(Category Mistake)를 범하게 된다. 그리고 점차 모든 가치, 윤리, 질서개념을 상대화시키는 완전한 상대주의를 주장하게 된다.¹⁴⁶⁾ 아이러니하게도 상대주의의 윤리는 타인(상대)의 가치와 윤리는 존중한다는 의미의 순기능과 달리

136) Jacques Derida, of Grammatology, trans. G. Spivak. Baltimore. Jhon Hopkins University Press, p. 158

137) 제임스 K. A 스미스, 「누가 포스트모더니즘을 두려워하는가, p. 78

138) "텍스트의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다시 상기해보자. 이 말은 사람들이 주장했거나 순진하게 믿어버린 것처럼 혹은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비난한 것처럼 모든 준거 대상들이 유보되거나 부정되고 아니면 하나의 책 속에 폐쇄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준거 대상과 현실적 실체가 자연적 혼적의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해석의 경험 안에서 서가 아니라며 이 현실적 실체를 준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할 뿐이다.", (Jacques Derida, Limited Inc, Paris: Galilee, 1990, p. 273; 김상환, 「테리다의 해체론」, 연세대학교 인문학 연구원, 1995, p. 11, 재인용)

139) 제임스 K. A 스미스, 위의 책, p. 79

140) 제임스 K. A 스미스, 위의 책, p. 79

141) Michel Foucault, Discipline and Punishment : The Birth of Prison, trans. Alan sheradan, (감시와 처벌, 나남 역간), p. 77

142) 공리주의자 제리미 벤담에 의해 설계된 파놉티콘(1791)은 '모두 다 본다'는 뜻을 가진 원형 감옥이다. 푸코에 의해 재조명된 파놉티콘은 죄수들이 항상 감시받고 있다는 자각을 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그런 감시에 대한 자각이 내면화되어 죄수들이 스스로 통제 안에 길들여지는 의도를 가졌다. 푸코에 따르면 이 시대의 규범 사회의 기본원리는 파놉티시즘(panopticism)이다.

143) 제임스 K. A 스미스, 「누가 포스트모더니즘을 두려워하는가, p. 153

144) 제임스 K. A 스미스, 위의 책, p. 156

145) 양운택, 「미셀 푸코」, 살림출판사, 2003, p. 60

146) 김성수, 「개혁주의 학문과 포스트모던 다원주의의 도전」, 통합연구 제7권, 통합연구학회, 1994, p. 30

‘타문화, 타인에 대한 이해’를 거부하는 세계관이 엮이는 모순성을 안고 있다. 상대주의 자체의 논리적 모순은 크게 자기모순적(self - contradictory), 자가당착적(self - stultifying), 자기파괴적(self - defeating)으로 파악된다.

첫째로 상대주의에는 보편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편적으로 주장하는 모순성이 존재한다. 즉 모든 체계의 타당성을 긍정한다고 하면서 인격적인 보편질서의 체계는 부정한다. 쉬운 말로 ‘절대적인 것은 절대로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크레타인의 거짓말’과 같은 자기모순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로, 상대주의는 다른 패러다임 혹은 체제와 대화를 하면서도 다른 패러다임을 평가함으로써 자가당착적이다. 즉 이 말은 ‘언어와 의미’도 패러다임적인 것으로서 통약불가능성(incommensurability of Paradigm)의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언어가 상대적이니 언어의 소통이 불가능한 것이며 상대적인 언어로 다른 패러다임을 평가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로, 상대주의는 서로를 긍정하고 협동하며 서로 동시에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시킨다. 왜냐하면 상대주의와 다른 견해를 가진 모든 철학적, 윤리적 주장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상대주의의 자체 파괴적인 합의를 불가능성이다. 많은 철학자들은 이런 상대주의의 철학적 약점을 지적해 왔다.¹⁴⁷⁾

우리는 이런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주장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그 주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확신하는지¹⁴⁸⁾를 물어야한다. 따라서 윤리적 상대주의자가 역사속의 사건에 대한 ‘선과 악’을 판단한다면 자기 파괴적인 오류에 놓이게 된다.

이는 마치 ‘무엇이 창의적인가?’, ‘무엇이 윤리적인가?’ 아울러서 ‘디자이너의 윤리적 소명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등의 가치규범을 상대주의 시대에 논한다는 것은 기동(기준)없이 건축(답론)을 세우려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것과 같다. 상대주의자는 모든 답론의 자리에 앉는 순간 그 사상의 오류에 놓이게 된다.

동시대의 디자인은 이러한 상대주의의 딜레마에 따라 메타담론 부재를 왜곡되어 수용함으로써 점차 디자인의 사회적 가치를 상대화시키게 되며 이로 인해 디자인은 기업에게는 영업이익의 도구로, 개인에게는 만족감의 도구로 전락되고 만다.

3. 소비지상주의 도구로서의 동시대 디자인

우리는 인간의 처신(행동)에 어떤 기술이 개입할 때 그것이 가져올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다.¹⁴⁹⁾ 바꾸어 말하면 디자인의 생산성을 통해 그 사회에 끼칠 영향(결과)을 평가하는 것이 ‘윤리’적 태도라는 뜻이다.

‘그로피우스의 의도와 관계없이 바우하우스가 물적 모더니즘의 모태¹⁵⁰⁾로 평가받게 되고 모더니즘 디자인의 길이 열려진 이 후, ‘기계미학을 중심으로 하는 근·현대의 디자인은 물적 조형의 극단적인 추상화를 통한 기계론적 인식과 더불어 인간에게 기술시대에 걸맞은 기능적이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고 동시에 삶을 폐쇄적이고도 자율적인 기능체로 변모¹⁵¹⁾시켰다. 이러한 기능주의적 디자인의 문체점은 인간의 내적인 문제를 제품의 스타일과 다양성으로 해결하려한다는 것이다.

동시대 디자인의 왜곡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한 걸음 나아가서, 기능성은 살아있으나 필요성은

죽은 디자인을 생산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생산은 자본주의 사회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나 디자인이 자유로운 입장에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결국 디자인을 통해 생산된 사물을 소유하게 되며 그 소유한 사물은 소비자가 누구인지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디자이너가 단지 배달부는 아니지 않는가?

바뀌 말하면 소비사회에서 “분명한 자아관, 확고한 정체성, 공동체의 목적이 없을 때, 우리는 대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¹⁵²⁾한다. 물질세계 안에서 삶의 가치와 인간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물질이 자신의 정체성을 대변하게 할 때 그 표출은 당연히 ‘소비’로 나타난다.

장 보드리야르는 이렇게 소비로서 자신의 실존을 확인하려 할 때 “소비는 사용가치의 소비에서 상징적(象徴的), 기호적(記號的) 가치의 소비로 변한다.”고 지적한다.¹⁵³⁾

그리고 자본주의는 시장 안에서 이러한 소비를 권장한다. ‘자본주의는 원활하게 집단적으로 협력하는 사람들, 더욱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 권위나 윤리, 또는 양심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독립되어 있다고 느끼는(실체와 상관없이) 사람들..., 목적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¹⁵⁴⁾ 한마디로 윤리의 부재 속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현대인에게 남는 것은 이웃으로부터의 ‘소외(疏外)’와 ‘고독(孤獨)’이다.

그러나 프롬의 지적대로 우리 문화는 사람들이 이러한 고독을 의식하고 깨닫지 않음으로써 도와주는 여러 가지 완화제를 제공¹⁵⁵⁾하는데 바로 상징성을 부여하는 (디자인된) 상품을 소유한 사람에게 ‘스테이투스 심벌(status symbol)’¹⁵⁶⁾을 제공하는 것이다. 보드리야르와 프롬의 이러한 소비사회의 지적대로 “소비시장은 본질적으로 도덕보다는 거래를 중시하며, 시장의 덕목은 가치가 아니라 가격¹⁵⁷⁾이기에 그 가격을 소유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는 비인격적인 투쟁이 뒤따른다.

즉 그 물질의 소유여부에 따라 존재론적 가치가 좌우되는 것이다. 사용가치와 구별되는 물질소유의 시대는 이미 인간 존재(human being)의 목적론 부재와 그 결과를 보여준다.



<사진1>cadillac Park Avenue sedan 1957



<사진3>cadillac Eldorado

152) 짐 윌리스, 「가치란 무엇인가」, 박세혁 역, IVP, 2010, pp. 70-71

153)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는 시뮬라시옹(Simulation) 이론과 하이퍼리얼리티 이론에 따라 현대인은 물건의 기능보다는 기호를 소비한다고 주장하였고, 묘사된 이미지가 현실을 대체한다고 말하며 더 이상 묘사할 실체가 없어지면서 실체보다 더 실체같은 하이퍼리얼리티(극실제)가 생산된다고 말한다.

154) 에리히 프롬, 「사랑의 기술」, 문예출판사, 2004, pp. 119-120 참조

155) 위의 책, p.120

156) 우나미 아키라, 「유혹하는 오브제」, p. 17

157) 짐 윌리스, 「가치란 무엇인가」, p. 143

147) 김성수, 위의 책, pp. 41-45

148) 래비 채커러스, 노먼 가이슬러 저,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을까」, 박세혁 역, 사랑플러스, 2005, p. 46 참조

149) C. A 반 페슨, 「급변하는 흐름속의 문화」, p. 237

150) 프랭크 휘트포드, 「바우하우스」, p. 232

151) 프랭크 휘트포드, 「위의 책」, p. 233



Brougham 1959¹⁵⁸⁾

<사진2>cadillac Freetwood 1959

물질소유와 인간의 자기이해의 관계는 1960년대 유행한 델핀디자인이라는 전거(典據)로 쉽게 설명된다. 큰 델핀이 붙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부자라고 하는 대응관계가 설정되어 있었다. 특별히 1958년 이후 캐딜락은 엘도라도(El Dorado)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이 단어는 '황금의 땅'이라는 의미로서 부의 상징을 극명히 드러낸다. 알리 얼(Herley Earl, 1893-1969)은 이러한 델핀스타일의 디자인으로 역사상 어느 디자인이든 누리지 못한 영향력을 경험하였으나 (다행스럽게도) 단 한 번의 디자인상(award)도 받지 못했다. 얼의 델핀 디자인은 소비지상주의에 물든 실존적 소비를 위한 디자인의 진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디자인이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맹목적으로 따르게 될 때 디자인의 창의성은(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소비사회가 공급하는 실존적 가치를 창조하는 방향으로 향한다. 이러한 가치를 위해 창의성을 발휘하는 현실은 디자인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산업혁명 이후 제기된 인간성 상실을 목도한 조형예술가들의 책임윤리에 의해 태동된 디자인이 도리어 인간성 상실을 따르는 생산자로 활동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질적인 반(半)기여이다. 푸코와 같은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소비시장은 일종의 '훈육메카니즘'이다. 이러한 훈육메카니즘을 통해 디자이너와 소비자는 시장에서 교환가치를 주고받게 된다. 디자이너는 자신의 창의성을 상품화¹⁵⁹⁾ 하고, 소비자는 '도덕적 해이'¹⁶⁰⁾ 속에 시장상품을 구매한다. 푸코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러한 시장속의 인간은 일종의 '파놉티콘 속의 인간'과 같다. 노동행위, 소비행위 등의 모든 삶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길들여져가고 재교육된다는 훈육메카니즘의 흐름과 같다. 이런 흐름은 푸코와 리오타르와 같은 철학자들에게는 굴욕적 인간상이며 훈육체제안의 종속으로 이해되어진다. 그들에게는 결코 받아들이 수 없는 '인간성 파괴'현상으로 이해되어진다. 흔히들 이 사회는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 사회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 비윤리적 행위와 타인을 철저히 의식하는 소비행위가 공존한다고 여겨진다. 자신의 도덕적 삶이 타인에게 끼치는 윤리적 책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만 자신의 실존적 삶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되며 디자인은 자신의 실존적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소비사회의 촉진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혹자는 디자인의 위치는 중용(中庸)적이며 소비주체자의 가치판단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공정성'을 주장할지 모르나 공정성의 윤리는 '중용'의 윤리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다른 사람들이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정언명령 같은 격언은 '다른 사람과의

158) 1950년대에서 1960년대 미국 자동차의 장식으로 델핀(Delphin)을 들 수 있다. 델핀은 날개모양을 형상화한 것으로써 '공간에 대한 승리의 표시'로 평가된다. 델핀은 물고기의 꼬리를 뜻하며 제트기와 로켓의 날개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1948년부터 1965년까지 등장한 델핀은 실용성과 기능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델핀은 기능은 있으나 필요 없는 제품이 아닌 기능과 전혀 관계없는 상징성만을 띄고 있다. (우나미 아키라, 「유희하는 오브제」, 1994, pp. 25-29 참조: 스티브 베일리·테렌스 콘란, 「콘란과 베일리의 디자인&디자인」, 2009, p. 135 참조)

159) 에리히 프롬, 「사랑의 기술」, p. 141

160) 짐 윌리스, 「가치란 무엇인가」, p. 226

교환에서 공정하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이 격언은 본래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타주의 명령의 대중적인 표현이었다. 프롬의 표현대로 말하면 중용은 이웃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이웃과 하나가 되라는 것이고 반면 공정성의 윤리는 책임이나 일체감을 느끼지 말고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것이다.¹⁶¹⁾ 인간을 소구대상으로 만들고 소유의 즐거움에 빠지도록 방지하는 것은 디자인의 본질적 책무(責務, responsibility) 이탈(離脫)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책무의 이탈'이 이루어지고 고착화될 때 소비자로 전락한 인간은 '즐거움'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게 된다. '즐거움'에 존재가치를 주는 인간의 처지는 파스칼이 경고한 '디베르티스망(divertissement)¹⁶²⁾의 개념에서도 파악된다. 파스칼의 말대로 "우주를 알고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일국을 통치하기 위해 태어난 인간이 한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일념에 사로잡혀 있다."¹⁶³⁾는 형국이 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디자인은 가치중립적이지 않을뿐더러 도리어 디자인이 윤리적 책임을 잃어버릴 경우 소비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당신이 사는 물건에 의해 당신의 정체성이 결정된다."¹⁶⁴⁾는 '광고매체의 Logos'에 지배된 소비사회의 사람들은 목적 없는 소비를 하고 디자인은 목적 없는 디자인을 통해 자신의 창의성을 드러내려한다는 사실이다. 파파벡의 지적대로 디자인의 사회적 가치가 얼마나 상실될 수 있는지를 짐작케 한다.

4. 자아실현으로서의 디자인과 책임윤리

자기 자신의 정체 확인은 바깥 세계를 보는 전망(원근법)을 터준다.¹⁶⁵⁾ 마찬가지로 자기 직업의 정체 확인은 그가 속한 사회에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비전'¹⁶⁶⁾을 정의하게 한다. 일찍이 빅터 파파벡은 디자이너가 디자인의 결과가 자신에게 환원되는 것을 경계한 바 있다. 그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디자이너가 디자이너로부터 시작되고 제작되어 물건화되고, 판매되어 사람들에게¹⁶⁷⁾ 돌아간다는 개념에 문제를 제기한다. 즉 디자인의 출발이 디자이너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타인)을 기점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1) 에리히 프롬, 「사랑의 기술」, p. 173

162) 본래 '디베르티스망'(divertissement)은 '기분전환'이라는 뜻으로 단순한 유희, 오락을 위한 무용을 말한다. 보다 넓게는 '시간보내기', '오락' 등 권태를 벗어날려는 모습을 뜻하며 파스칼은 존재론적인 질문을 피하기 위해 사소한 즐거움에 빠지는 모습을 '디베르티스망'으로 설명한다.

163) 강영안, 「강교수의 철학이야기」, IVP, 2001, p. 69

164) 빅터 파파벡, 「인간과 디자인」, 한도룡·이해목 역, 미진사, 1996, p. 144

165) C. A 반 퍼슨, 「급변하는 흐름속의 문화」, P. 87

166) 위와 같음

167) 빅터 파파벡, 「인간과 디자인」, P. 13



[그림 4] 요헨하겐 왕실 건축학교의 디자인 기초공정일람표¹⁶⁸⁾

그가 볼 때 디자인의 출발이 디자이너 자신의 자기중심적일 경우 진정한 대중(타인)을 위한 디자인이 나올 수 없다는 말이다. 파파넬이 경고하는 것은 이러한 이해아래에서의 디자인 창의성은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대로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출발은 상품을 소비하는 주체를 익명화시키며 소비주체와 생산주체간의 윤리적 관계가 결여되어 있다. 디자이너가 이와 같이 자아실현으로서 디자인을 구현하고 동시에 소비자는 그 생산품을 소비하며 '자아'를 확인하게 되는 악순환구조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에리히 프롬'이 '건전한 사회'에서 지적하듯 그는(디자이너는) 한 인간으로서 그 사회에서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와 인격적 단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이 타인과 인격적 관계를 형성치 않으며 자신의 업무 혹은 자신의 삶 안에 갇힐 경우 그가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기주의로 인해 그 결과로 자신이 타인에게 사랑받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이기적인 자기사랑으로 인해 자기를 위한 이기주의적 사랑도 실현되지 못한다. 프롬은 이러한 고립 자아로부터의 '해방의 기술(Art)'을 '사랑의 기술(Art)' 즉 사랑으로 설명한다.

프롬의 논리대로라면 사랑 곧 이타주의는 세상을 향하여 자신을 개방하고 타인을 수용할 수 있는 만남을 가능케 하며 현대인은 이런 이타주의적 사랑을 통해 창조적인 삶이 가능해진다라고 본다. 그리고 그는 자아도취를 벗어나는 객관성을 보편성에서 찾는다.¹⁶⁹⁾

따라서 디자인의 존재 목적이 디자이너의 자아실현이나 소비자의 '자아도취'에 머물지 않으려면 먼저 보편사회와 타인에 대한 책임윤리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러하지 않으면 그의 창의성은 '의식주의 해결' 시점에서 멈출 것이며 그 디자인 행위의 최종목적 이 자아실현이라면 자신이 절절한 임의의 '자아실현의 선(善)'을 위해 창의성이 발휘되고 창의성의 한계도 임의의 선(善)에 머물 것이다.

이에 따라 디자인의 가치는 소비사회 속하게 되어 갔다. 동시대의 수많은 디자인은 여전히 사회에 순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는 분명하다. 다만 이 시대에 만연한 책임윤리의 부재는 디자인을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도구, 즉 디베르티스망의 도구로 전락시킴으로써 디자인의 학문적 가치를 위협하고 있음

168) 빅터 파파넬, 「인간과 디자인」, P. 14

169) 에리히 프롬, 「사랑의 기술」, p. 160

이 분명해진다.

III. 참된 미덕에 근거한 디자인의 책임윤리

책임윤리의 확립은 디자인의 학문적 위상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디자이너가 창의성을 도덕적으로 발산할 능력을 만들어준다. 나아가서 산업사회에 건설적인 비판능력을 소유한 윤리적 디자이너를 탄생케 한다.

이제 본 장에서는 디자인학문에 변화를 가져올 윤리적 대안을 찾고자 한다. 특별히 디자인과 같이 '물건과 인간', 바꾸어 말하면 '상품과 소비자' 혹은 '디자이너와 창조물' 같은 사물간의 타자성, 사람들간의 타자성이 관계된 학문은 '관계(relation)에 대한 윤리학이 요청된다. 즉 개별존재간의 관계이해가 선제(先在)되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디자인과 같이 타자와 관계하며 창의성을 발휘하는 학문, 타자의 삶을 관여하는 학문에는 어떤 타자윤리가 받아들여져야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논제에 비해 보다 근원적인 살핌이 필요하다.

앞선 역사적 반성을 통해 합리주의에 근거한 자율적 윤리와도 구별되며, 상대주의에 근거한 가치상대적 윤리와도 구별되는 다른 대안을 찾고자 한다.

따라서 개별존재간의 타자성에 대한 정지(精微)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필연적으로 존재간의 관계의 규명을 위해 보편존재이신 하나님의 이타주의 명령에 근거한 타자윤리학을 찾을 이유가 발견된다.

이에 연구자는 18세기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의 참된 미덕의 정의를 통해 디자인의 책임윤리를 세우고자 할 것이다.

1. 에드워즈와 당시대 철학자들 간의 덕(virtue)논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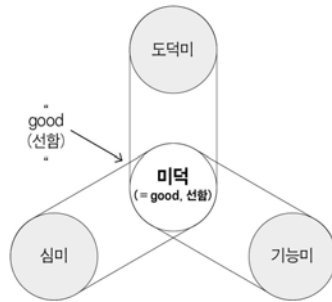
에드워즈가 말하는 「참된 미덕의 본질」(The Nature of True Virtue)과 디자인 책임윤리의 관계를 논하기 전에 먼저 에드워즈 시대에 만연했던 '덕의 정의'에 대한 에드워즈의 판단과 그의 저술 목적을 짚어 보겠다.

에드워즈의 '덕 윤리'(virtue ethics)와 보편성 추구 그리고 이에 근거한 디자인의 책임윤리를 논하기에 앞서 덕의 개념을 근원부터 살펴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본래 '선'과 '덕'의 관계를 정의하려 할 때 '선'이라는 용어 'good' 안에 ' 좋음', '선한', '질서'라는 포괄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덕'(virtue)은 기능적, 인격적, 심미적 등의 함의를 가진 개념이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적어도 데카르트 이전만 해도 '선'(good), ' 좋음', 그리고 '덕'의 개념을 기능적, 시각적 분야와 인격적, 도덕적 분야로 분리하여 학문적 이원론(academic dualism)¹⁷⁰⁾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는 덕의 의미를 선 혹은 선함과 관계해서 논해야 하는데 그 '덕의 정의'를 지금 세대와 같은 윤리적 상대주의의 시대의 개념으로 인지할 때는 '책임윤리' 또한 '가치상대화' 되어 상호소통이 불가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덕과 선함의 관계는 구분(區分)은 되어도 분리(分離)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170) '학문적 이원론은 개념상 구분되는 것을 사실상 분리된 것으로 격상시키는 추상의 오류의 전형적 사례에 해당한다. 사상과 실천이 사실상 분리된 것으로 간주될 때 양자의 관련 문제는 항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된다.' (최은순, 「토마스 아퀴나스 존재론의 교육학적 해석」, 2012,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p. 36)



[그림 9] 미덕의 상호 연합적 개념

이러한 도덕을 통해서 보듯 기능미, 심미, 도덕미와 같은 ‘미’의 개별적 가치와 개념은 통진적인 미덕 아래에서 상호연합(union)된다.

덕의 정의와 본질에 대한 이해는 데카르트 이후 합리주의적 사고 아래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덕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의해 재해석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덕과 도덕에 대한 기준을 수정하게 되었다. 이 움직임의 선두에 도덕철학자들이 있었다.”¹⁷¹⁾ 이 도덕철학을 새롭게 학문으로 정립하려던 학파는 케임브리지의 신플라톤주의며 대표적인 학자들은 샤프츠베리, 데이비드 흄, 프란시스 허치슨, 아담 스미스 등이었다.¹⁷²⁾

이제 에드워즈가 반박한 당시의 도덕철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겠다.

에드워즈는 동시대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덕의 정의와 윤리를 받아들일 경우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가 무너짐을 간파하고 이를 반대하였다. 에드워즈는 “나의 덕에 대한 논고는 본래 샤프츠베리, 허치슨, 그리고 턴벌이 주장한 덕의 단상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¹⁷³⁾ 라고 밝힌 바대로 그의 저서 『참된 미덕의 본질』(The Nature of True Virtue)에서 이들의 논리를 직접 거론하며 논박하였다.

샤프츠베리는 그의 저서 『덕에 관한 연구』¹⁷⁴⁾에서 선과 덕의 개념을 구분하였다. 그에 따르면 선이란 그가 속한 조직의 웰빙(wellbeing)¹⁷⁵⁾을 촉진하는 것이며 이 선의 감각은 모든 감각적인 동물 안

171) 김성광, 「조나단 에드워즈의 도덕정치론」,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1, p.21
 172) Lucas Siorvances, “Neoplatonism”, Encyclopedia of Philosophy Vol.6, Edueard Craig, general Editor(New York:Routledge, 1998), pp.798-803 :김성광, 위의 책, p. 21, 재인용
 173) Jonathan Edwards,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6, Letter and Personal Writtians, p. 696
 174) 일반적으로 알려진 샤프츠베리의 본명은 샤프츠베리 백작 안토니 에슬리 쿠퍼 (Shaftesbery, Anthony Ashley 3. Earl of 1671-1713)로 존 로크를 가정교사로 두었으며 훗날 케임브리지 플라톤주의자의 영향을 받았다. 주요저서는 「덕에 관한 연구」(An Inquiry Concerning virtue)외에 The Moralist, a Philosophical Rhapsody, A letter Concerning, Enthusiasm 등이 있다.
 175) (wellbeing 혹은 well-being)은 17세기 후반에 도덕철학자들이 사회의 좋은 삶이란 뜻으로 사용

에 다 있다.

감각적인 동물이란 인간은 물론 호랑이같은 짐승도 포함된다. 동물이 그가 속한 조직의 삶을 촉진한다면, 이것이 선이 된다. 그러나 인간이 조직이나 공동체의 웰빙을 촉진하는 것을 덕이나 능력(Virtue or Merit)이라고 한다.¹⁷⁶⁾

이 말은 덕을 윤리적 행위와 연관시키고 짐승의 감각적 행위인 선과 구별한 것이며 선과 덕의 개념을 공동체의 웰빙과 연관하여 풀이한 것이다.

샤프츠베리는 도덕감(moral sence)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함으로써 도덕감이란 ‘우리에게 좋다, 나쁘다는 정서를 가지게 하는 것, 선과 악, 덕과 악덕을 판단하는 능력’¹⁷⁷⁾이라 정의했다. 샤프츠베리에 따르면 인간에게 좋은 것과 선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나쁜 것과 해로운 것은 부자연스러운 것¹⁷⁸⁾이다. 이 정서는 개인이나 사회, 국가의 문제에 무엇이 선하고 덕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인간 안에 내재된다고 본다.¹⁷⁹⁾ 다만, 인식을 하는 감각정서가 환경에 의해 달라질 수가 있으며 이성의 도움이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프란시스 허치슨은 샤프츠베리로부터 도덕감 개념과 방법론을 받아들였다. 허치슨은 도덕감이란 신의 형상의 잔재로서 인간에게 있으며 “도덕감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도덕판단에 대한 설명이 있을 수 없다”¹⁸⁰⁾고 하였다.

기억할 것은 샤프츠베리나 허치슨 모두 신의 도덕적 판단의 기준을 부인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샤프츠베리는 최고의 덕은 신을 믿는 신앙에 있다고 했으며 존 로크도 신의 뜻이 ‘덕의 참되고 유일한 척도’라고 하였다.¹⁸¹⁾ 그러나 허치슨은 이에 더 나아가서 신은 인류에게 도덕감을 주었기 때문에 도덕감은 사람들로 하여금 덕의 영원한 기준, 변함없는 속성과 가치를 발견하게 하며, 도덕적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¹⁸²⁾

이에 반해 데이비드 흄은 이성에 대해 회의론적 입장에서 덕을 말한다.

그는 “도덕은 행동과 정념에 영향을 미치므로 결과적으로 도덕은 이성에서 유래할 수 없다. …… 도덕은 정서를 환기하여 어떤 행동을 일으키거나 억누른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성 자체는 힘이 없다”¹⁸³⁾라고 말하며 ‘이성은 단지 거짓이나 참을 발견하거나 덕과 악덕을 발견할 뿐, 도덕성은 판단이 아니라 느낌(feeling)의 문제로 보았다. 그래서 덕에 대해 호의를 느끼듯 악덕에 대한 불쾌를 느낀다는 것이다. 존 로크 또한 “우리는 그 덕에 느끼는 인상에 따라 선악을 알게 되며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덕이고 고통을 주는 것은 악덕이다.”¹⁸⁴⁾ 라고 하였다.

데이비드 흄이 말하는 덕은 허치슨과 샤프츠베리와 다른 입장으로 우리가 느끼는 쾌락과 즐거움, 고통들의 경험이 곧 선악 간, 덕과 악덕 간의 기준이다. 데이비드 흄의 이러한 주장은 “사회생활에서 자

하였다. (김성광, 「조나단 에드워즈의 도덕 정치론」, p. 24, 참조)
 176) 김성광, 위의 책, p. 24
 177) 김성광, 위와 같음.
 178) Shaftesbery, An Inquiry Concerning virtue, book 1, II,1, p.199, good or ill, natural or unatural ; 김성광, 「조나단 에드워즈의 도덕 정치론」, p.25, 재인용
 179) 김성광, 위와 같음.
 180) Hucheson, An Essay o the Nature and Conduct, section IV, p.113
 181) 존 로크, 「인간지성론」, 서울 ; 대양서적, 1980, p. 97
 182) 김성광, 「조나단 에드워즈의 도덕정치론」, p. 28
 183) 김성광, 위의 책, pp. 27-28
 184) 김성광, 위의 책, p. 23

신의 재산을 보존하고 늘리는 합의를 지키는 것이 결국 덕과 연결되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경우 불의는 악덕과 연결이 되는 것이다”¹⁸⁵라는 논리로서 그의 주장대로라면 개인의 호감을 주는 것은 선이 될 수 있으며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은 악이 될 수 있다.

만약 흠의 사상을 번밀히 본다면 오늘날의 동시대 디자인은 흠의 사상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발견케 될 것이다.

에드워즈는 사프츠베리와 허치슨 그리고 흠과 같은 도덕철학자들의 저서를 읽으며 즉각적으로 이러한 주장은 도덕의 상대화¹⁸⁶를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에드워즈가 볼 때 인간의 도덕감이 각 개별인간의 판단에 따른다면 개인에 따라, 시대에 따라 도덕과 윤리의 상대화가 생기며 공동체의 정의 또한 해체될 것이었다.

에드워즈는 이런 도덕의 상대화로 야기되는 공동체안의 충돌의 문제를 개인적 즉 사적인 이익과 보편적(가장 큰 공동체)이익과의 관계로 설명한다. 그는 설명하기를 “어떤 사람이 공적인 이익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사적인 이익에 대한 관심에 지배당할 때.... 공공의 적이 되게 한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사적인 이익이 공적인 이익과 충돌하는 모든 경우에 그러하다.”¹⁸⁷라고 말하며 인간의 도덕감에 의존하는 덕의 윤리를 반박한다.

에드워즈는 나아가서 도덕감에 의한 개인적 이익과 사랑 안에 상호충돌성이 보이듯 도덕감에 의한 개인적 분노와 감사에도 상호충돌성이 있음을 밝히며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선천적이고 도덕적인 감각이 덕의 원리가 된다는 주장¹⁸⁸을 반박한다.

즉 ‘사욕(私慾)의 제동 장치라고 볼 수 있는 도덕이 사욕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누군가 유용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도덕적 행위를 하는 사랑이 있다면, 그는 도덕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 추구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반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¹⁸⁹’

요약하여 볼 때, 에드워즈 시대에 도덕 철학자들의 덕은 개인적 이익과 감각적 판단에 해당된다. 물론 덕이 공동체의 행복을 촉진하거나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이전의 덕 개념과 비슷하다. 하지만 계몽주의 시대 계약론의 영향으로 인해 공공선의 개념이 개인적 판단과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바뀌자, 자신의 이기심에서 나온 ‘악’도 공적인 덕으로 이해될 여지가 열리게 된다. 에드워즈는 이러한 상대화의 결말을 예견하였기에 사프츠베리, 허치슨, 데이비드 흠과 같은 사람들의 ‘덕’의 개념을 반박하며 보편존재이신 하나님 아래의 ‘덕’의 개념을 주장한다.

에드워즈의 이러한 주장은 스피노자의 『에티카』¹⁹⁰에서도 발견되며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¹⁹¹에서도 발견된다. 다만 스피노자는 이성을 통하여 신과의 연합을 주장한 반면, 아우구스티누스

185) 데이비드 흠, 「인간이란 무엇인가 - 오성,정념,도덕본성론」, 서울: 동서문화사, 2009, pp. 40-54
 186) Jonathan Edwards,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8, True Virtue, p. 624
 187) 조나단 에드워즈, 「참된 미덕의 본질」(The Nature of True Virtue), 부흥과개혁사, 2005, pp. 46-47
 188) ‘공리주의자들이 도덕성의 근거로 제시하는 ‘혜택의 추구’와 ‘고통의 회피’는 도덕적 행동의 실제적 동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리주의의 구도에서 도덕적 행위는 언제나 상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지위에 머무를 수 밖에 없으며 그런 만큼 그것은 우연적이고 불안정한 것이 된다.’ (최은순, 「토마스 아퀴나스 존재론의 교육학적 해석」, p. 37 참조)
 189) 최은순, 「토마스 아퀴나스 존재론의 교육학적 해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2, p. 38
 190) “덕을 따르는 사람들의 최고의 선은 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스피노자, 『에티카』, 제4부 정리 35, 증명, 서울:이제아북스, 2005, p.121 참조)
 191) “이는 그 사람들이 인간의 판단을 가지고 헤아리거나 자신들의 특수하고 부분적인 도덕의 좁은

는 인간관계 즉 개별존재는 지역성과 시간성 안에¹⁹² 존재하기에 덕에 대한 이성과 감정의 ‘판단과 이해’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2. 에드워즈가 말하는 참덕의 본질과 이타주의

에드워즈가 말하는 참덕의 본질과 존재간의 관계는 미덕(virtue), 아름다움(beaty), 그리고 사랑(love)에 대한 주장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에드워즈는 미덕을 정의하기를 ‘지성과 의지를 가진 존재 속에 있는 어떤 아름다움’으로 보며 ‘그 미덕이란 본래 마음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이 미덕이란 아름다운 심성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에드워즈가 볼 때 미덕은 지적인 측면을 넘어 인격 속에서 ‘미’를 추구하고 행동하며 즐거워하는 전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덕을 존재에 대한 호의, 존재에 대한 사랑으로 전개하며 그 존재를 보편존재와 개별존재로 구분하여 그 관계를 펼쳐나간다.

에드워즈가 말하는 보편존재(general being)¹⁹³는 하나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다. 신플라톤주의에서는 이데아를 존재의 선(bonum)과 참(verum)과 하나됨(unum)의 원형으로 본다. 신플라톤주의에 따르면 세상에 있는 존재 속에서도 이런 속성들이 있다¹⁹⁴고 본다. 에드워즈는 이 개념들을 사용하여 참덕을 정의한다. “참된 미덕이란 보편존재에 대한 호의”¹⁹⁵(benevolence to being general)라고 말한다. 에드워즈는 보편존재와 개별존재와의 관계를 설명하기를 보편존재란 존재들의 존재(being in being), 모든 존재의 총체, 모든 존재 위의 존재이신 하나님이시며 인간과 자연은 유한한 개별존재(particular being)에 불과하다.

에드워즈는 존재(being)라는 개념을 통해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이 존재간의 인격적 연합이 존재의 의미를, 존재의 완전성을 이룬다고 본다.

이러한 에드워즈의 참덕의 정의는 미와 완전성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철학과도 일치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존재와 선의 일치’가 가지는 아름다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존재와 선의 일치는 사회, 국가, 집단의 구조 안에서 볼 때 존재들이 상호 연관되며, 서로 관계를 맺으며, 모든 성향이 고려되

구범으로 진 인류의 일방적인 도덕을 측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상생물이 짧은 인간은 자기들이 현재 경험한 것을 가지고 경험하지 못한 옛 시대와 그 당시 사람들의 사정과 관계를 비교 통합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한 몸, 한 날, 한 가정에서는 각 지체나 시간, 인물들이 어떻게 서로 적절하게 알맞은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자의 경우를 이해하기 힘든 것으로 여기고 후자의 경우를 쉽게 인정하고 받아주게 됩니다.”(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대한기독교서회, 2003, pp. 107-109)

192) “나는 변화되는 존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더 지혜롭게 되기 원할 때 덜 좁은 상태에서 보다 더 좋은 상태로 변해 간다는 사실만으로도 확실히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위의책, p. 141)

193) general being, being in general은 존재일반, 또는 보편존재로 번역이 가능하다. 이 논문에서는 역사에 따라 보편존재로 사용한다.

194) 김성광, 「조나단 에드워즈의 도덕 정치론」, p. 32 참조

195) benevolence는 박애, 호의, 사랑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개별자들을 향한 보편존재의 사랑으로 볼 때 그리고 조건적 사랑과 구별된다는 면에서 ‘박애’로 사용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역사에 따라 ‘호의’로 사용한다.

어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담당할 때 그 존재와 그 존재가 속한 세계에 완전성과 안전성으로 이루어진다.”¹⁹⁶⁾ 이는 에드워즈가 말하는 보편적 아름다움 즉 ‘미’는 존재의 완전성과 관계된다는 주장과 상호충돌의 여지를 만든 상대주의자와도 반한다.¹⁹⁷⁾

에드워즈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런 주장은 인간의 이성을 중시한 계몽주의 사상이나 이성보다 도덕감을 신뢰하는 당대의 여러 도덕 철학자들과 반하며, 나아가서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며 개별자 간 상호충돌의 여지를 만든 상대주의자와도 반한다.¹⁹⁷⁾

에드워즈의 참덕의 본질은 그가 정의하는 ‘아름다움’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난다. 그는 아름다움을 보편적(general) 아름다움과 개별적(particular) 아름다움 즉, 특수한 아름다움으로 구분하여 말하며 보편적 미를 일차적 미로, 개별적 미를 이차적 미¹⁹⁸⁾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일차적 미는 영적인 미, 마음의 일치, 보편존재에 대한 호의 등이 포함되며 이차적 미는 사물의 질서, 규칙, 조화와 같은 미와 존재자 간의 호의, 정의, 의무, 감사 등이 내포된다.

따라서 보편적 아름다움이란 관계된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성향을 고려하면서 가장 완전하고, 포괄적이고, 보편적으로 관찰했을 때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개별적 아름다움은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가지지 않은 채로 존재할 수도 있고, 심지어 보편적 아름다움과 반대적인 모습으로 존재할 수도 있는 것¹⁹⁹⁾이다. 또한 개별적 아름다움은 제한되고 개별적인 영역 속에서 어떤 특수한 것들에 대한 관계와 성향만을 고려한 아름다움 것이라고 설명한다.

에드워즈의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사회생물학적 미는 개별적 미의 한 영역에 속한다. 에드워즈는 이차적 미 즉, 개별적 미를 다시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이차적 미는 “대상들의 모양과 방식의 상호일치와 조화에서 보이기도 하며 사회에 존재하는 질서와 사람들의 지혜에서도 보인다고 말한다. 나아가서 개별자 간의 정의, 감사, 상대적 의무도 이차적 미로 설명한다.”²⁰⁰⁾ 또한 이러한 이차적 미에는 일차적 미의 형상(image)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차적 미를 통해 일차적 미의 유비(analogy)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²⁰¹⁾

196)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pp. 464-465 참조

197) 에드워즈의 주장은 헤르만 바빙크의 사상에서도 엿보인다. 헤르만 바빙크는 범신론적인 상대주의와 이신론적인 진체주의에 대하여 양비론을 펼치며 양 사상의 모순성을 이렇게 설명한다. “결국 실존의 총합에 관해서는 단지 세 가지 대안이 있을 뿐이다. 우연, 운명 또는 신성(神性)이다. 우연에 있어서 확일성 없는 다양성이 있을 수 있고, 운명에 있어서는 다양성 없는 확일성이 있을 수 있으나, 확일성 가운데 다양성은 근본적 목적에 대한 입증이며, 창조적 정신에 대한 보증의 표적이다. 현존하는 세상에는 무한한 다양성과 놀랄 만한 확일성이 존재한다.”, 헤르만 바빙크, 『개혁교의학』 2권, 부흥과개혁사, 2011, p. 244

198) 에드워즈는 과거 전통적인 아름다움의 개념을 깨고 노동적 아름다움을 이차적 아름다움으로 구분한다. “he broke from tradition and categorized all such notions of moral beauty as inherently “secondary”, or inferior…….” Norman Fiering, Jonathan Edwards Moral Thought and its British Context (Eugene ; Wifg & stock Publishers, 1981, p. 112)

199) 김남준, 『도덕적 통치』, 생명의말씀사, 2007, p.82

200) 조나단 에드워즈, 『참된 미덕의 본질』, pp. 57-72

201) 그의 논리에 따르면 일차적 미와 이차적 미는 질적으로 다른 두 가지의 미가 아니라 이차적인 본성적 미가 일차적 미의 예표가 된다. “What was unusual in Edward’s theory was not so much this division into two qualitatively different kinds of beauty, with one subordinate to the other, but his belief that secondary or natural beauty, which constitutes all the humanly perceived beauty in the universe short of the loving union of spiritual creatures to universal

참덕을 소유한 사람은 일차적 미 아래서 이차적 미를 즐거워하며 그 개별적인 존재의 크기와 중요함에 따라 아름다움을 느린다고 말한다. 그러나 보편존재에 대한 호의 없이 혹은 일차적 미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으며 이차적 미만을 추구한다면 경우에 따라 이차적 미간에 상호충돌이 생기거나 일차적 미에도 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개별적 미가 보편적 미를 거부할 경우, 개별적 미의 추구는 개별적 미 간 상호충돌할 수 있으며 보편적 미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참되신 하나님을 받아드리지 않은 개별존재는 참덕을 소유되지 못하며 인간의 모든 미의 추구는 충돌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에드워즈는 이 관계를 강도일당의 ‘덕’과 그 강도일당이 사는 공동체의 ‘덕’간의 충돌성으로 비교하여 설명하며, 프란시스 웨퍼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나치즘을 예로 들며 민족주의 간의 상호충돌성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일차적 미를 거부한 이차적 미의 추구는 상대주의에 대한 ‘덕과 미’에도 적용되어 설명될 수 있다.

에드워즈가 말하는 참된 미덕으로서의 보편적 미와 개별적인 미의 구분에 입각하여 볼 때 윤리적 상대주의에 따른 개별자 간 자의적인 ‘덕과 미’의 상대화는 상호충돌하게 되며 한쪽에서 ‘신하다’는 규정을 다른 한쪽에서는 악하다고 규정할 수 있음을 곧 파악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에드워즈는 개별적 미간의 상호조화와 존중을 위해 그리고 ‘선과 미’ 간의 완전성을 추구하기 위해 보편존재와 개별존재간의 호의적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다. 이 완전성의 개념과 사물의 선한 상태는 ‘개별적 사물의 완전성’과 ‘보편적 질서 안에서 완전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사물은 그 사물로서의 자기에게 한정된 ‘있음’(esse)을 충만히 소유함으로써 개별적인 완전성을 지니게 되고, 다른 것들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보편적 질서 안에서의 완전성을 소유하며 이것을 통하여 사물은 고유한 아름다움을 갖는다.²⁰²⁾

위 논리에 따르면 미덕의 본질은 ‘이해와 지식’보다 존재 안에 내재된 아름다움의 ‘성향과 의지’와 관계된다. 상대주의적 관점의 ‘미’ 개념이 상호 간 충돌 되는 것과 달리 이러한 ‘미’ 개념은 개별적 아름다움의 가치를 보편적 아름다움의 관계 안에서 조화를 이룬다. 나아가 상대주의의 모순성과 상대화를 넘어 상호교통(communication)이 가능하다.

또한 존재의 아름다움은 선의 일치와도 관계된다. 덕의 실행을 위한 선의 정의가 존재의 완전성, 존재 간의 조화와 연계된다는 것이 파악된다.

그러면 참덕을 소유함으로써 존재 간의 인격적인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동시대의 자아실현적 가치관, 혹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과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가? 그리고 어떤 답을 주는가? 기본적으로 에드워즈는 “홀로 존재하는 것에서는 아름다움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은 관계 속에서 확인되며 다른 것과의 조화에서 발견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관계, 합의된 인식, 사랑이 없으면 아름다움은 그 가치가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이다.”²⁰³⁾

이에 따르면 ‘미’란 타자성과 분리할 수 없다. 따라서 ‘사랑’도 타자성이다. 동시대인들의 자기실현적 사랑의 딜레마 또한 에드워즈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에드워즈는 『자기사랑(self-love)의 정의와 한계를 논함으로써 개별자 간, 타자 간의 사랑, 호의에 대한 이해를 전개하며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 에드워즈는 ‘자기사랑’을 이렇게 정의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그 자신의 개별적 행복이든지 아

being, is simply a “type”, that is, an inferior material symbol, of primary beauty.” (Norman Fiering, 위의 책, p. 113)

202) 조나단 에드워즈, 『참된 미덕의 본질』, p. 23

203) 이문균, 『조나단 에드워즈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와 그 목회적 함의』, 한국기독교신학논증 65집, 한국기독교학회, 2009, p. 138

니면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든지 간에 자신을 유쾌하게 하고 즐겁게 하기 때문이다.”²⁰⁴⁾

에드워즈는 자기사랑 자체를 다소 중립적으로 본다. 다만, 참덕으로서의 일차적 미와 연합되지 않은 자기사랑의 한계를 설명하며 참덕의 유무에 따라 이타적 사랑을 올바르게 정의 내려려 한다. 그는 타인에 대한 사랑, 다시 말해서 “타인에 대한 호의를 가진 사람은 타인의 행복을 보게 될 때 기뻐한다.”²⁰⁵⁾ 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행복을 보는 것이 타인에게 호의를 가진 성향에 만족을 주는 것이며 이것은 성향과 기호(appetites)가 그 기호를 만족시키는 즐거움보다 그에게 선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타인에 대한 호의가 없는 자기사랑에 의한 결과는 참된 미덕과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예를 들자면 감사와 분노와 같이 “자신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덕목’을 가장 높이 인정하는 것, 호의를 많이 받을수록 더욱 찬성하는 것, 어떤 타인의 자질이나 능력, 성격을 사랑하는 것,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 더욱 애정을 가지는 것²⁰⁶⁾과 같은 사랑은 참덕과 관계없이도 자기사랑에 의해 발휘하며 경우에 따라 타인과 공동체 그리고 넓게는 보편존재와 충돌되기도 한다.”고 말한다.

결국 위의 자기사랑은 그 기준이 자기로부터 출발함으로써 상대적 관계, 절대적 관계에서 모두 자신을 도덕의 준칙으로 여기는 한계를 드러낸다.²⁰⁷⁾ 에드워즈는 이러한 자기사랑에 의한 ‘덕의 실천’은 자아실현의 한계를 넘지 못하며 그 한계에 이를 때 공동체, 넓게는 보편존재의 ‘덕’과 모순되며 충돌한다고 말한다.²⁰⁸⁾ 자신의 양심²⁰⁹⁾에 따라 타인을 대하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타인을 배려한다면 타인을 자기사랑의 도구로 여기거나 자신의 목적만으로 환원시키게 된다. 그러하기에 보편존재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개별존재인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며 이런 사랑만이 보편존재와 개별존재간의 충돌 없이 항존(恒存)된다.

3. 보편적 이타주의에 의한 디자인의 책임윤리

204) 조나단 에드워즈, 위의 책, p. 83

205) 조나단 에드워즈, 앞의 책, p. 83

206) 조나단 에드워즈, 앞의 책, pp. 84-99

207)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창의적 에너지의 한계를 가져오는 삶의 태도로 이기적인 목표, 즉 자기 중심적인 목표를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정신 에너지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는 내면적인 장애로써 자기를 지키려는데 모든 주의력이 투자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은 자아를 지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한다. 또 다른 하나는 이기적인 목표, 자기 이익에 관련하여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주의를 볼 수 없는 경우이다, 그에게 주변세계 곧 사회를 탐험하는 에너지는 사라진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창의성의 즐거움」, pp. 418-420 참조)

208) 반 퍼슨은 인간이 자기 중심을 넘어 자신을 둘러싼 사회에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함을 강조한다. 인간이 자신의 삶,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 발전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와 이에 모순되는 타고난 자기중심적인 욕구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에 책임 있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C. A. 반 퍼슨, 「급변하는 흐름속의 문화」, pp. 28-30 참조)

209) 에드워즈는 사람이 자기 자신 속에서 모순을 느낄 때 불편해지는 성향을 ‘양심’이라고 말한다. 말하자면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타인이 자기에게 했으면 자기가 화가 날 그런 일을 타인에게 자기가 하고 있다고 느낄 때 불편해지는 마음의 성향에서 특별히 나타난다고 말한다. 에드워즈는 우리 자신의 입장을 타자의 입장에 놓는 이 방법이 인간이 보편존재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다만 그 양심이 개별적으로 발휘될 때 저마다 기준이 다르기에 혼돈이 생기며 나아가서 양심과 덕의 차이를 구분하여 양심이 발휘된다고해서 그가 덕을 실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에드워즈에 따르면 양심은 자신의 기준 이상으로 타인이 좋은 일이 생기거나 기쁜 결과가 올 때 역설적으로 질투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 양심은 참된 미덕이 아님을 예시한다고 말한다. (조나단 에드워즈, 앞의 책, pp. 108-118 참조)

참덕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과 타인, 즉 개별자 간의 관계를 잘 이해시킨다. 즉 개별존재간의 ‘선과 덕’의 개념은 보편존재 아래서 조화를 이루게 되기에 상호충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면 보편존재에 대한 호의가 없는 미덕은 개별자 간 배타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거나 도덕적 충돌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강도의 합의와 목적으로 이루어진 그 안에서의 선한(good) 목적이 전체 사회구성원에게 악한(bad) 목적이 되는 도덕적 사건으로 이어진다. 한 집단의 이익실현을 위한 행위에 보편가치가 고려되지 않을 경우 그 집단을 포함한 사회공동체 혹은 관계된 타 집단에 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참덕은 인격적인 보편질서 아래서 조화될 때 확보되며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참덕의 실현은 개별존재 간의 연합과 교통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즉 구어(口語)로서의 언어를 넘어서 미술, 디자인, 음악 등의 시각언어, 기능언어 간에도 상호 교통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월터스토프(Wolterstorft)는 이런 완전성의 관계를 상호 간 ‘평안(살롬)’의 관계로 정의하면서 인간의 모든 관계에 보편존재와의 관계, 자아와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등을 포함시킨다.²¹⁰⁾

보편성을 추구해야 할 당위성은 자연물과 디자인된 창조물에서 파악되는 ‘개별성과 완전성’ 간의 관계를 유비(Analogy, 類比)하여 설명할 수 있다. 즉 자연물 속의 ‘선과 미’, 그리고 디자인의 ‘선과 미’의 차이를 비교하자면 자연질서 전체는 보편존재와 연합하면서 동시에 개별존재인 자연물들의 개별적 완전성과도 연합한다. 마찬가지로 디자인의 창조물은 디자이너와 연합하면서 동시에 개별부품들의 개별적 완전성과도 연합한다. 이로 보건대 디자이너는 창조행위에 의한 창조물을 완전한 형태로 추구한다는 면에서 보편적 완전성과 보편질서를 그 제품 안에 투영시키는 창조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비관계를 통해 개별존재인 인간은 보편존재를 닮은 형상(image)으로서의 독특한 인격체라고 이해 될 수 있다.²¹¹⁾ 더욱이 인간은 인격적 창조행위를 하는 유일한 개별존재이기에 보편존재와 개별존재에게 책임 있는 주체자임이 드러난다.²¹²⁾

따라서 참덕을 통한 인간이해는 인간이외의 개별존재들, 예컨대 동물, 식물, 무생물과 같은 존재들에게 없는 ‘인격적인 공동체 윤리’의 근거를 만든다. 참덕아래서 사회구성원으로서 타인과의 관계는 흡스가 말하는 자기보존을 위한 정념(passion)²¹³⁾을 넘어서 타인을 개별존재로서 인정하는 서로간의 도덕적 응시를 가능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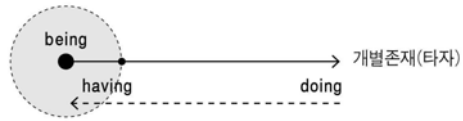
인격적인 공동체 윤리 아래에서 서로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을 인식하게 될 때 사회구성원은 필연적으로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와 일치하려는 경향성을 가진다. 다시 말해서 개별존재(being)는 보편존재와 보편질서에 대한 인정과 호의를 가지게(having) 될 때 그 자기정체성에 따라 사회적 책임윤리를 실천(doing)한다. 보편성 추구와 창조행위의 발산(發散)을 디자인의 책임윤리로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은 도식이 가능하다.

210) 김남준, 「도덕적 통치」, p. 82

211) 조나단 에드워즈, 「참된 미덕의 본질」, pp. 60-61 참조

212) 조나단 에드워즈, 「참된 미덕의 본질」, p. 51

213) 강영안, 「강교수의 철학이야기」, pp. 112-114 참조



→ 발산 방향, 책임윤리와 실천

-----> 추구 방향, 보편적 가치의 호의

[그림 10] 이타적 책임윤리와 인격적 보편주의와의 관계

디자이너는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의 보편존재를 인정하는 존재자(being)가 될 때 그 사회의 보편가치를 인격적으로 소유(having)하게 된다. 이어서 그의 도덕적 창의성(creative)을 발산함으로써 실천(doing)하게 된다. 그의 창조행위의 결과로 타자(소비자, 개별존재)는 이차적 미를 누리며 그 이차적 미를 통해 디자이너가 가진 보편가치와 도덕적 창의성에 호의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을 통해 사회적 책임윤리가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선순환적 책임윤리가 실현될 때 인간존재(being)인 디자이너는 그가 분여(分與)받는 인격적 보편질서를 발신²¹⁴⁾하는 주체자가 되고 사회구성원인 개별존재(타자, 소비자)는 혜택을 그의 디자인 행위로 인해 누리게 된다. 개별존재들은 그의 창조행위에 합의된 보편질서에 호의를 가지게 됨으로써 개별자 간 연합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에드워즈의 참덕의 원리에 따르면 존재들 간의 미와 사랑은 ‘코람테오’ 즉 하나님 아래에서 충돌을 없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 ‘참덕’,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아래에서 개별존재들은 자아실현적 이타주의를 넘는 이타주의를 실현하게 된다.

디자이너 또한 참덕 아래에서 자아실현적 창조행위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게 된다. 따라서 디자이너는 참덕을 소유할 때 올바른 이타주의를 실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편적 이타주의’는 ‘참된 미덕에 근거한 이타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다.

보편적 이타주의는 자기존재 간 서로 타인의 행복을 즐거워하는 호의로 실천된다. 보편적 이타주의는 자기사랑 혹은 자아실현적 이웃사랑과 구별된다. 자아실현적 이타주의를 통해 디자이너가 실현될 경우 타자(소비자)의 즐거움이 디자이너에게 귀속될 뿐이다. 자아실현적 이타주의는 타자(소비자)의 즐거움이 디자이너 혹은 그가 속한 이익집단이 바라는 기준을 이탈할 때, 혹은 타자가 다른 경로를 통해 이차적 미를 즐거워할 때 내면의 불균형을 경험하며 불쾌감을 가지게 된다. 즉, 에드워즈가 말하는 양심의 불균형을 경험하는 것이다.

디자이너는 자기 이익 집단의 가치실현이나 이익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타자의 행복을 바라게 되며 창의성 또한 그러한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 보편적 이타주의와 자아실현적 이타주의의 구분은 프롬이 이기적 사랑과 이타적 사랑을 구분한 개념보다 더 세밀한 면이 있다.

214) 범신론적 견해와 달리 ‘보편존재에 대한 호의’를 가진 존재는 보편존재와 일치하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의 삶은 보편존재의 추구하고 경향성 등과 조화를 이루고 본질적이며 최종적인 목적이 일치한다는 의미에서 본편 존재와 연합된다. 따라서 그의 윤리적 행위는 보편존재의 성향을 닮아(image) 보편 질서를 발산하는 결과를 낳는다.

에드워즈에 따르면 디자이너가 이타적 사랑을 발산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의 한계 그리고 보편성과 관계없는 개별적 사랑이라면 그 사랑의 행위(doing)는 자기만족의 한계 그리고 가치상대화의 모순성의 벽을 만나게 된다. 당연히 그의 디자인 창의성도 동기부여를 상실하게 된다.

보편적 이타주의에 근거한 디자인은 그 목적과 가치를 통해서도 자아실현적 이타주의, 생물학적 이타주의와 구별된다.

이에 반해 디자인의 목적이 일차적 미와 연합하여 있다면 디자이너의 창의성은 보편가치가 내포됨에 따라 타자(소비자)의 이차적 만족감을 넘어서 개별존재간 인격적 연합을 이루며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개별자 간의 인격적 연합을 통해 개별존재들은 기능미, 심미, 도덕미(그림10 참조)의 통일성을 경험하게 된다.

4. 미덕의 담지자인 디자이너의 창의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은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핍이라고 말한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무엇이 나빠지게 됨은 그 안에 좋은 것이 상실되었음²¹⁵⁾을 말한다. 그가 볼 때 악함은 ‘선’이 결핍된 상태의 경향성이다.

이러한 논리로 미덕과 관련하여서 악덕을 논하여 보면 악덕(惡德, vice)은 ‘선’의 결핍으로 인해 일어나는 인격적 판단과 행동에 대한 도덕적 평가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참된 미덕’의 결핍은 이차적 미만을 추구하거나 개별적 가치만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기에 결국 ‘악덕’의 생산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선한(good, 미덕) 디자인과 베스트(best) 디자인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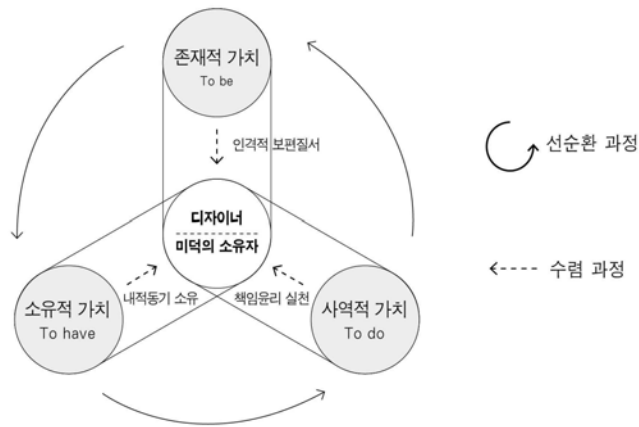
디자이너가 가치중립적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 볼 때 미덕이 결여된 디자인은 중립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악한 디자인이 될 수 있겠다. 미덕이 없는 개별 디자인은 그 가치와 목적이 선하지 못하거나 선이 결핍되어 있으므로 그 디자인으로 관련 집단에 얼마나 큰 이익이 창출되었으며 얼마나 타자(소비자)들이 선호했느냐와 관계없이 공동체에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한 예는 성인상품에서부터 부모동의 없이 팔리는 학교 앞 불량식품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사회에서 흔히 경험하게 된다. 이는 곧 디자이너에게 선한(good, 미덕)의 필요성을 요청할 뿐 아니라 보편적 이타주의에 의한 책임윤리가 필요함을 인지시킬 이유로 충분하다.

디자이너가 참된 미덕을 소유하지 않을 경우 그에게 타자(소비자)는 이익실현을 위한 소구대상(target audience)에 불과하다. 디자이너가 소비자를 연구하고 분석한다는 것은 타자의 어려움과 고통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타자의 욕구를 파악하려 한다는 의미와 같다. 당연히 이러한 타자이해는 개별존재를 익명화시키며 개별존재 간, 타자 간(디자이너, 소비자)의 인격적 연합을 이룰 수 없게 한다.

역으로 디자이너가 참된 미덕을 소유할 경우, 그에게 타자(소비자)는 이익실현이나 자기만족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 디자이너는 타자를 향한 인격적 호의에 따라 타자의 행복을 즐거워하며 타자를 위해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하게 되며 보편질서 안에서 개별존재간 타자 간 인격적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

결국 디자이너는 참된 미덕아래 보편적 이타주의를 소유할 때 그의 창조행위는 소비자(타자)를 인격적인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철학을 확보할 길이 열리며, 그의 창조품은 덕의 본질, 미의 본질을 추구하는 삶의 실천의 열매가 된다. 바로 타자를 위한 목적과 완전성을 향하는 결과물이 될 수 있다. 디자이너가 이러한 미덕을 담지한 존재로 거듭날 때 그는 아래와 같은 가치를 소유한 존재가 된다.

215)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p. 229



[그림 11] 미덕의 소유자인 디자이너의 가치

수렴적 과정에서 디자이너의 그 존재가치를 파악하여 본다면 인격적 보편질서를 수렴함으로써 존재적(To be) 가치를 가지며 그 보편질서 안에서 도덕적 창의성을 내적동기로 소유하게(To have) 되고 그 창의성을 통해 책임윤리를 실천(To do)하게 된다.

이런 보편적 이타주의에 의해 디자인 학문은 타자를 환대할 수 있는 학문, 타자를 위해 생활할 수 있는 학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보편적 이타주의를 수용할 때 디자이너는 인격적인 창조자로서 자신이 담지(擔智)한 디자인 창의성(Creativity)을 사회적 가치를 위해 발산(發散)하며, 보편적 아름다움을 목적으로 개별적 아름다움을 만드는 존재(being)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듬어 볼 질문은 사회구조를 통해서 형성된 소비사회 매커니즘 속에서 의사결정권이 약한 디자이너가 사회적 책임윤리를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현실성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반 퍼슨은 말하기를 '사회적 힘이 작용하는 장기관 위에서 줄을 움직인다는 것은 도덕적 확신에서 우러난 행위이기 때문에'²¹⁶⁾ 우리는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구조는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숙명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와 같은 구조를 인식할 때 막다른 길을 알아낼 수 있고 막다른 길의 정체를 파악할 때 비로소 책임적인 문화 전략을 어떻게 가동할 수 있는가하는 물음을 새롭게 제기할 수 있다. 사회구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만이 그 구조에 새로운 탈출구를 열어 줄 수 있다.”²¹⁷⁾고 말한다.

IV. 결론

연구자는 유일하신 편재자 하나님의 미덕, 곧 참된 미덕(True Virtue)에 근거한 이타주의를 통해 디자인의 사회적 책임윤리를 수렴함으로써 디자이너가 참덕을 소유한 미덕의 담지자가 되어 그의 학문이 가치중립적인 기능적 학문이 아니라 윤리적 소명을 담당하는 실천학문이 됨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216) 반 퍼슨, 「급변하는 흐름속의 문화」, pp. 273

217) 반 퍼슨, 「급변하는 흐름속의 문화」, p. 274-275 참조

본 연구의 첫 단계는 디자인학문과 윤리와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것이며 다음단계로 동시대의 디자인에 나타나는 윤리적 상황을 진단하는 것, 그리고 현 윤리적 상황이 디자인 학문의 본래적인 한계와 그 결과인지를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이 분석과정을 통해 현실의 모순성이 드러날 경우 동시대 책임윤리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적합한 디자인의 사회적 책임윤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그 목적에 따라 본 연구자는 디자인학문 또한 그 시대의 세계관에 종속되기에 그 세계관에 담긴 '의미의 집진물'을 발견하고 올바르게 통찰하기 위해 이전 시대와의 대화의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 시대에 올바른 이타주의가 결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크게 윤리적 상대주의, 소비자상주의, 자아실현적 디자인으로 구분하여 동시대 책임윤리를 비판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디자이너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의 사회적 인식과 가치는 윤리의 부재와 가치중립적 태도로 인해 그 위치를 위협 받고 있음을 주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의 역사 속에서 경험한 교훈과 반성을 토대로 보편사회에 타당한 책임윤리가 필요함을 확인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참된 미덕의 본질을 근거로 하여 디자인의 사회적 책임윤리를 규명해 보았다. 이를 위해 에드워즈 시대의 도덕철학자들간의 '덕의 논쟁'을 통해 에드워즈가 수립한 참된 미덕의 본질이 오늘날의 디자인의 실존적 문제들을 규명하기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에드워즈에 따르면 개별존재 간의 '선과 덕'의 소통은 오직 보편존재 아래서 인격적 보편질서를 통해 상호간 충돌 없이 이루어진다. 즉 인격적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서 사회구성원 간 서로를 향해 호의를 가지게(having) 되며 이를 통해 유기적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완전과 개별성이 통일을 이루게 된다.

디자이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창조세계와 질서를 알 때 참된 개별존재(being)가 되며 타자를 수용하는 유기체 의식을 인격적으로 소유(having)하게 된다. 그리고 그의 창의성은 사회적 책임윤리를 수행하는 창조행위(doing)가 된다. 디자이너의 창의성은 참덕을 실천하는 발산과정으로 이해되며 그의 창의성은 보편가치를 지향함으로써 사회 공동체의 목적과 연합한다.

이러한 선순환은 개별존재(디자이너, 소비자) 간에 호의적 사랑을 나누게 하며 유기적 연합과 조화를 이루게 한다. 동시에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통한 창조행위'는 일차적 미를 내포한 이차적 미의 추구 이기에 타자는 디자인된 이차적 미를 통해 디자이너가 담지(擔智)한 일차적 미에 대해 인격적 호의를 가지게 된다. 또한 공동체 사회는 디자이너의 창조행위로 인해 도덕적 창의성, 심미적 창의성, 기능적 창의성을 통진적으로 누리게 된다.

연구결과를 통해 확고해지는 결론은 디자이너는 자신이 인격적 존재이기에 인격적 창조자 아래서 가치를 반영하는 아름다움을 창조하려는 발산적 경향을 가진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가 속한 보편사회와 그가 살고 있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참된 미덕의 담지자(擔持者)로서 그 미덕을 발산하고 자신과 타자 간 호의적 사랑을 나누는 이타주의 디자인의 실천자가 되는 길이 열린다.

참고문헌

내행본

강영안 (2001) 「강교수의 철학이야기」, 서울:IVP
 _____ (2005) 「레비나스의 철학」, 서울:문학과지성사
 _____ (2012) 「철학은 어디에 있는가」, 파주:한길사
 _____ (2005) 「타인의 얼굴」, 문학과 지성사
 김영철의 9인 (1989) 「현대사회와 윤리」, 서울:서광사

김남준 (2007) 「도덕적 통치」, 생명의말씀사
 _____ (2012) 「빛으로 산다는 것」, 생명의말씀사
 김상환 (1995) 「테리다의 해체론」, 연세대학교 인문학 연구원
 김영채 (2007) 「창의력의 이론과 개발」, 서울:교육과학사
 문정화 외 (1999) 「또 하나의 교육 창의성」, 서울 : 학지사
 서강식·김태훈·이범용 (2004) 「도덕과 교육의 이론」, 고양:인간사랑
 서성록 (2007)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서울:에듀커뮤니케이션
 신국원 (2008)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서울:IVP
 양낙홍 (2003) 「조나단 에드워즈의 생애와 사상」, 서울:부흥과개혁사
 양운덕 (2003) 「미셀 푸코」, 살림출판사
 오창섭 (2001) 「이것은 의자가 아니다」, 서울:홍디자인
 이양호 (1999) 「막스 켈러의 철학」, 대구:이문출판사
 인디고연구소 (2012)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 서울: 궁리출판
 장재윤, 박지영 (2007) 「창의성의 심리학」, 서울:가산출판사
 정시화 (1986) 「현대디자인 연구」, 미진사
 조성근 (1999) 「산업디자인 논술」, 서울 : 한일직적소유권센터
 조정옥 (1999) 「감정과 에로스의 철학-막스 켈러의 철학」, 서울:철학과현실사
 차동관·김국현 (2001) 「한국인의 직업윤리와 인식」, 대구: 정림사
 최대석 (2002) 「디지털시대의 산업디자인학」. 홍익대학교출판부
 최병태 (1996) 「덕과 규범:도덕교육의 이해」. 서울:교육과학사
 하종덕·문정화 (1999) 「또 하나의 교육 창의성」, 서울:학지사
 황경식 (2012) 「덕 윤리의 현대적 의의」, 서울:아카넷

번역본

C. A. 반 퍼슨 (1981) 「문화의전력」, 강영안역, 서울:범문사
 _____ (1994) 「급변하는 흐름속의 문화」, 강영안역, 광주:서광사
 _____ (2008) 「몸 영혼 정신」, 손봉호·강영안역, 광주:서광사
 J. 다우마 (2008) 「개혁주의 윤리학」, 신원하역, 서울:CLC
 니콜라스 카 (2012)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최지향역, 광주:청림출판
 낸시 피어시 (2011) 「완전한 진리」, 홍병룡역, 서울:복있는사람
 데이비드 웰스, 윤석인역 (2011) 「윤리실종」, 부흥과개혁사
 데이비드 흙 (2009) 『인간이란 무엇인가-오성,정념,도덕본성론』 서술; 동서문화사
 도로시 셰이어즈 (2007) 「창조자의 정신」, 강주현역, 서울:IVP
 도빈 W. 로빈 (2008) 「21세기 그리스도인의 윤리」, CLC
 락시미바스카란 (2006) 「한 권으로 읽는 20세기 디자인」, 시공사
 래리 재커라이어스·노먼 가이슬러 (2005)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을까」, 박세혁역, 사랑플러스
 로버트 루트벤스타인·미셸 루트벤스타인 (2007) 「생각의 탄생」, 박종성역, 서울:에코의서재
 로버트 워터먼외 (2002) 「최고 인재 확보와 유지 전략」, 이상욱역, 서울:21세기북스
 에드워드 월슨, 이병훈 (1992) 「사회생물학」, 박시몽역, 서울:민음사
 리처드 마우 (2012) 「문화와 일반은총」, 권혁민역, 서울:새물결플러스
 마이클 셀렐, 안진환, 이수경역 (2012) 「왜 도덕인가?」, 서울:한국경제신문
 _____ 이창신역 (2010) 「정의란 무엇인가」, 광주:김영사
 막스 켈러 (2008) 「동감의 본질과 형태들」, 조정옥역, 서울:아카넷
 미셸 푸코 (2012) 「광기의 역사」, 이규현역, 광주:나남출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2007) 「창의성의 즐거움」, 오혜숙역, 서울:북로드

부루스 와인스타인 (2012) 「윤리지능」, 송기동역, 서울: 다산북스
 빅터 파파네 (2011) 「녹색위기」, 조영식·김태선·심효영역, 서울:서울하우스
 _____ (1986) 「인간과 디자인」, 한도룡·이해목역, 서울:미진사
 _____ (2009) 「인간을 위한 디자인」, 현용순·조재경역, 서울:미진사
 스티븐 베일리·테레스 룬란 (2009) 「룬란과 베일리의 디자인&디자인」, 허보윤·최윤호역 디자인하우스
 스피노자 (2005) 「에티카」, 제4부 정리 35, 증명, 서울:이제아북스
 슬라보이 지젝 (2010) 「죽은 신을 위하여」, 김정아역, 서울:도서출판 길
 아리스토텔레스 (2012) 「니코마코스 윤리학」, 강상진·김재홍·이재우역, 서울:도서출판 길
 아우구스티누스 (2011) 「참된 종교」, 성염역, 서울:분도출판사, 개정판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 (1997) 「덕의 상실」, 이진우역, 서울:문예출판사
 알폰소 고메스-로보 (2008) 「도덕과 인간의 선」, 강두호역, 고양:인간사랑
 임마누엘 레비나스, 강영안역 (1996)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에리히 프롬 (1994) 「건전한 사회」, 김병익역, 광주:범우사
 _____ (2011) 「자유로부터의 도피」, 원창화역, 서울:홍신문화사
 _____ (2012) 「소유나 존재냐」, 최혁순역, 광주:범우사
 _____ (2006) 「사랑의 기술」, 황문수역, 서울:문예출판사
 요시히코 가와우치 (2005) 「유니버설 디자인」, 홍철순·양성용역, 서울:도서출판 선인
 우나미 아끼라 (1994) 「유혹하는 오브제」, 이순혁역, 서울:도서출판국제
 이안 메레이 (2006) 「조나단 에드워즈의 삶과 신앙」, 윤상문·전광규역, 이레서원
 제임스 K. A. 스미스 (2009) 「누가 포스트모더니즘을 두려워 하는가?」, 박삼중·배성민역, 광주: 살림출판사
 조나단 에드워즈 (2010) 「참된 미덕의 본질」, 노병기역, 서울:부흥과개혁사
 존 로크 (1980) 「인간지성론」, 서울:대양서적
 김 윌리스 (2011) 「가치란 무엇인가」, 박세혁역, 서울:IVP
 카알 율터, 박현석역 (2007) 「행복론」, 고양:에듀미디어
 토마스 암스트롱 (2004) 「다중지능과 교육」,전윤식·강영심역, 서울:중앙성적출판사
 프란시스 웨퍼 (1993)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김기찬역, 생명의말씀사
 _____ (1996) 「이성에서의 도피」, 김영재역, 생명의말씀사
 프랭크 휘트포드 (2000) 「바우하우스」, 이대일역, 시공사
 하워드 가드너 (2007) 「열정과 기질」, 임재서역, 북스넷
 헤르만 바빙크 (2011) 「개혁교의학 2」, 박태현역, 부흥과개혁사

학위논문

강덕구 (2006) 「자기조절 최종적 발달(SRCT)과 조형교육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논문
 김보경 (2008) 「사회와 창의성 교육의 재개념화」,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김성광 (2011) 「조나단 에드워즈의 도덕 통치론」,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김은주 (2008) 「디자인 창의성 평가도구개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영준 (2008) 「신학적 윤리로서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의 덕 윤리(Virtue Ethics)에 관한 연구」, 장로신학대학원, 석사논문
 천정일 (2009) 「사회를 위한 디자인 이유와 소의계층에 대한 디자인 감성의 영향」,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최은순 (2012) 「토마스 아퀴나스 존재론의 교육학적 해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박의섭 (2008) 「레비나스의 이타주의 윤리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학술지

- 강현무 (1995) 「멤피스 디자인 양식을 중심으로 한 에트레 솟사스의 작품분석」, 한국디자인학회
- 김성수 (1994) 「개혁주의 학문과 포스트모던 다원주의의 도전」, 통합연구 제7권, 통합연구학회
- 김연희 (2011) 「절적 사고와 창의성」, 미학·예술학 연구 VOL33, 한국미학예술학회
- 김현수 (2011) 「도덕적 창의성 개념의 도덕 심리학적 배경에 관한 관찰」, 도덕 윤리와 교육, 제 34호
- 나동훈·조성근 (2008) 「디자인 창의성 향상을 위한 내적 동기 강화 방안」, 조형교육학회
- 문태형 (2000) 「사회지능 척도개발 연구, 아동교육」 제 9권, 한국아동교육학회
- 이문균 (2009) 「조나단 에드워즈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와 그 목회적 함의」, 한국기독교신학논증 65집, 한국기독교학회
- 하상오 (1995) 「바우하우스의 조형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외국문헌

- Hutcheson (2002) An Essay on the Nature and Conduct of the Passions and Affections, with Illustrations on the Moral Sense, Indianapolis: Liberty Fund,
- Jacques Derida (1976) of Grammatology, trans. G. Spivak. Baltimor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 Jonathan Edwards (2003) The Nature of True Virtue, Wipf & Stock Publishers,
- Jonathan Edwards (2001)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16, Letter and Personal Writians (1998) Yale University Press
- Michel Foucault (1977) Discipline and Panishment : The Birth of Prison, trans, Alan sheradan
- Norman Fiering (1981) Jonathan Edwards Moral Thought and its British Context, Eugene : Wifg & stock Publishers
- Shaftesbery (1897) An Inquiry Concerning Virtue or Merit, Vol. 1, Oxford: Clarendon Press

문학,문화/04/논평문/

나동훈박사의 발표에 대한 질의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교수)

현대의 디자인이 지나친 상업화로 인해 본령을 잃고 사회적 책임윤리를 저버리고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 터에, 나동훈박사의 논문은 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예술은 감상자를 단순한 소비자로 바라보며 자기이익의 관철에만 몰두하는 데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는 “미덕의 담지자로서 디자이너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미국의 청교도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디자인이 가치중립적인 기능적 학문이 아니라 윤리적 소명을 담당하는 실천학문”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논문을, 첫째 디자인학과 윤리와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것과, 둘째 동시대 디자인의 현주소로 각각 진단한 다음, 디자인의 책임윤리의 필요성을 ‘참된 미덕’을 주된 개념으로 하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적 미학을 밑바탕으로 하여 서술해가고 있습니다. 연구자는 에드워즈의 신학적 미학을 현대적 지평, 그것도 가장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예술계의 현재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에드워즈의 미학의 주장이 얼마나 지금도 주효한지 판단하는 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표자는 참덕을 소유함으로써 존재간의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듯이 존재안에 내재한 성향과 의지는 상대주의의 모순성과 상대화를 넘어 상호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합니다. 궁극적으로 에드워즈에 있어 미덕은 본질적으로 타자성과 구분할 수 없으며, “타인에 대한 호의를 가진 사람은 타인의 행복을 보게 될 때 기뻐한다”는 타인 지향성을 띠니다. 그런 반면 자기사랑은 그 기준이 자기로부터 출발함으로써 상대적 관계, 절대적 관계에서 모두 자신을 도덕의 준칙으로 여기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자기 사랑에 의한 ‘덕의 실천’은 자아실현의 한계를 넘지 못하여 그 한계에 이를 때 공동체, 넓게는 보편존재의 ‘덕’과 모순되며, 충돌된다고 말합니다.(p.19)

나동훈 박사의 발표는 우선 자기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현대 디자인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그 원인을 ‘미덕의 부재’에서 찾음으로써 디자이너가 ‘보편적 이타주의에 의해 책임윤리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디자이너가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의 보편존재를 인정하는 존재자가 될 때 그 사회의 보편가치를 인격적으로 소유”하게 되며, “그의 도덕적 창의성을 발산함으로써 실천”하고 “창조행위의 결과로 타자(소비자, 개별존재)는 -- 보편가치와 도덕적 창의성에 호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박사의 논문은 타자를 이익실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자신의 이익실현과 타자의 욕구를 채우려는 근시안적 관점에 물음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현대예술, 디자인은 소비사회의 구조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기능주의에 빠지거나 상업주의에 편승하는 것은 이런 현상을 반증해주며, 결국 현대예술, 디자인에서 ‘보편적 이타주의’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나박사가 이런 현상의 돌파구로서 에드워즈의 신학적 미학을 도입한 것은 적실성을 갖으며 본인도 매우 흥미